

<2015년 11월 22일 주일말씀> **짧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말씀**

그 순간 거쳐 가는 사람들

본 문 고린도전서 13장 10절

* (모든 말씀이 그렇지만) 이 말씀은 특히 대언하는 자가 정말 잘 전해야 하는 말씀이다.

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권위 있게 전하되,
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니 잘 설명해 주듯 전한다.

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
가르치듯 잘 설명해 주면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전해 주고,
강하게 찌를 부분은 확 짚러 주면서 전한다.

전체적으로 성령님은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강렬한 분위기다.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함께하십니다.

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11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.

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그 순간 거쳐 가는 사람들’입니다.

◎ 이 말씀은 선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,

안타까운 것을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고하며
대화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은 짧지만, ‘핵을 치는 말씀’입니다.

고로 듣는 대로 쑥쑥 이해할 것입니다.

그러나 그만큼 집중하고 잘 들어야

말씀이 ‘뇌’에 확 꽂혀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.

정~말 잘 전하고, 정~말 잘 듣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선생이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

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각나, 하나님과 성령님께 고했습니다.

“예전에는 그리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

<이성>으로 쓰러지고 <환난>으로 쓰러지고,

<자기가 좋아하는 것>을 따라가려다 섭리사를 떠났습니다.

예전에는 정말 맛있게 섭리 인생을 살면서 뛰었는데,

어찌다가 그리되었을까요?” 했습니다.

◎ 나의 기도를 듣고,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그때는 <섭리사 환난기>라서 ‘사막과 같은 처지’에 있었으니,
목이 타면 ‘구정물과 흙탕물’도 ‘약수’라 하면서 먹듯이,
<참된 자들, 큰 자들>이 없어서 그런 자들을 썼다.

배고프면 ‘거지 밥’도 ‘진수성찬’으로 보이는 것이다.

- ◆ <그때 열심히 하다가 나간 자들>을 생각해 보고,
<지금 잘하는 자들>과 비교해 보아라.

비교해 보니, ‘거지 밥’ 과 ‘진수성찬’ 이지 않느냐.

영계로 보아라. ‘그 행함’ 을 생각해 보아라.

잘해 주면 ‘잘하는 자’ 가 되어서 잘했고,
잘 안 해 주면 ‘속 썩이는 자’ 가 되어 속을 썩였다.

그때는 ‘참된 자’ 가 없었다. 찾는 중이었다.

<참된 자>가 없으니

그런 자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. (하셨습니다.)

- ◎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 잘 들어요.

- ◆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집이 없으니
‘초가집’ 도 ‘궁궐’ 같이 쓰지 않았느냐.

그렇다고 늘 ‘초가집’ 에서 살 수 있느냐.

어서 개발하여 ‘새 집’ 에서 살아야 된다.

<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은 자들>은
섭리사에 있어도 ‘초가집 신앙인’ 으로서, 삼위 앞에 합당하지 않다.

- ◆ <월명동>도 시대에 따라서
‘나 여호와의 뜻’ 대로 개발하여 뜯어고쳤다.

이와 같이 <너희 자신>도

‘나 여호와의 뜻’ 대로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된다.

<월명동>을 개발하지 않았다면,
하늘 역사의 ‘하늘 궁’ 으로 삼지 못했다.

<사람>도 그러하다.

나 여호와의 뜻대로 개발해야 ‘하늘 신부’ 로 삼는다.

- ◆ 어떤 일을 할 때도 <연습>이 있다.

<연습>은 ‘시험 보는 것’ 도 아니고
‘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것’ 도 아니다.

<연습>은 ‘연습’ 이다.

이와 같이 ‘그 순간 거쳐 가는 자들’ 은 그때 그 순간뿐이다.

<참된 자, 큰 자>가 없을 때이니, 그리도 귀히 쓴 것이다.

젓가락도 없을 때는

그때의 환경에 맞춰서 ‘나무’ 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쓰지만,
때가 되면 ‘금 젓가락’ 으로 먹는다. - 사람도 그러하다.

- ◆ 지난날 <섭리역사>를 ‘하나의 자기 쉼터’ 로 여기며
잘해 주면 잘하고 잘 안 해 주면 안 하면서
주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행했던 자들은
<차원 높여 변화된 새 역사의 휴거 역사>에서
<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뛰는 자들>과 같이 살 수 없다.

- ◆ 결혼한 부부라도 ‘성격’ 이 안 맞고 ‘생활’ 이 안 맞으면,
같이 못 사는 것이다.

<영계>에서도 ‘자기 급, 자기 수준, 자기 차원’ 대로 살아간다.

<자기 성격>대로 살고 <자기 생활>에 빠져 사는 자가
어떻게 ‘전능자’를 모시고 살겠느냐.

혹여 그런 자들이 온전히 행한 자들 사이에 끼어서
천국까지 따라와도, 천국 문 앞에서 돌려보낸다.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●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. 잘 들어 봐요.

- ◆ 지난날 그리도 잘했는데,
어떻게 <이성, 환난, 자기중심>으로 쓰러져
섭리사를 나가게 됐냐고?

섭리역사가 ‘환난기’라 ‘사막 같은 처지’여서
<참된 자, 큰 자>가 없을 때이니, 그런 자들을 썼다.

- ◆ 처음 월명동에 돌을 쌓았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.

<큰 돌>이 없을 때는 ‘금방 깨지는 석회석’을 보고,
겉보기에 하얗고 좋으니 그 돌을 쌓지 않았느냐.

그리고는 모두 구경하라고 하며 보여 주었지?

<석회석으로 쌓은 돌 조경>이 무너지고 깨진 후에야
그제야 알고 ‘희귀 돌인 무늬석, 애석, 오석, 자연석’을
값비싸게 주고 사 와서 값있게 쌓았다.

- ◆ 지난날에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,
결국 <이성, 환난, 자기중심>으로 쓰러져 나간 사람들도 그러하다.

그때는 <연단된 자, 만든 자, 큰 자>가 없으니,
그때의 처지에 따라서 그들을 쓴 것이다.

- ◆ 그러니 <겉>을 보지 말고 <질>을 보아라.
<양>도 보지 말고 <질>이 좋은지 보아라.

<생각의 질>이 좋은지 보아라.

<생각의 질>이

철인지, 돌인지, 흙인지, 금인지 보아라. (하셨습니다.)

◎ 맞습니다!

사람이 <겉모습>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<생각의 질>이 나쁘면,
결국 <그 생각>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집니다.

<생각의 질>이 좋아야 <행실의 질>이 좋고,
그로 인해 <영혼의 질>도 좋아져서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됩니다.

◎ <임시로 지은 집>은 그리 튼튼하지 않습니다.

순간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.

고로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, 태풍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.

◎ 섭리역사에 왔지만,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,

끝까지 삼위와 구원자와 함께하지 못하여

<휴거 역사>에 동참하지 못하고

<그 순간 거쳐 가는 사람>으로 끝난 이유는

자기가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,

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- ▶ 그저 잘해 줄 때만 잘하고,
잘해 주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.
- ▶ 좋은 날에는 잘했지만
섭리사에 환난이 오니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.
- ▶ 주가 보일 때는 잘했지요.
주가 보이지 않으니 실감하지 못하고, 의심하고, 오해했습니다.

◎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

좋은 때만 잘하고, 잘해 줄 때만 잘하고,
보일 때만 잘하고, 자기가 좋을 때만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
혹은 “선생님이 나오시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!”
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입니다.

지금!! 선생이 성삼위를 모시고
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
매일 주와 함께 뛰고 달리는 자들만 앞날이 창창합니다!

◎ 그래서 <생각의 질>을 봐야 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.

<생각의 질이 좋은 사람>은
<질 좋은 시대 생명의 말씀>을 알아보고 확신하고 행합니다!

고로 <영혼>도 쭉쭉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
순간 거쳐 가는 자가 아닌 ‘주의 몸’ 이 되어
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‘주의 뜻’ 대로 살아갑니다.

그리함으로 ‘주의 집’ 을 덜어 주고,
주와 함께 ‘혼인 잔치 휴거의 삶’ 을 살면서,
주와 함께 ‘희망의 섭리역사’ 를 창대하게 펼쳐 나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● <얼굴>은 금방 늙습니다.

고로 나이가 들면 <얼굴>만 보고서는
누가 ‘과거에 미인’ 이었는지,
누가 ‘과거에 못난이’ 였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.

한번 나이 든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
‘과거에 미인’ 이 누구였는지 찾아보세요!

<성령님>도 찾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. (^ ^)

모두 다 ‘가을’ 을 맞아서 ‘낙엽’ 이 되었으니,
어떤 풀이 ‘여름 한철에 그리 싱싱했는지’ 어떻게 알겠습니까?

● 그래서 <생각의 질>을 보고, <행실>을 보고, <혼>을 보고, <영>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.

●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◆ 나 성령같이 ‘영’ 을 보아라. <영>을 봐야, 누가 ‘진짜 미인’ 인지 다 구별한다.

<육>은 변화무쌍하다.

과거에 ‘섭리사에서 미로 휘날렸던 자들’을 보아라.
이제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다.

서로 쳐다보아라. (충격이지?)

<육>을 보고 너무 충격 받지 말고, <영>을 보라.

과거에 미인이었더라도 그 <육>은 이제
아줌마, 아저씨가 되었고 중년이 되었다.

◆ 모두 <영>을 위해 살아야 돼. <영들>은 ‘미’로 휘날린다.

<육>은 세월 가면 주글이가 된다.

어서 <육>이 다 늙기 전에 빨리 <육>을 ‘씨’로 뿌려서
<영>을 미인으로 변화시켜 <영의 열매>를 거둬라!

이것이 첨단의 지혜다!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성령님의 말씀을 더 들어 볼까요?

깊은 속 이야기를 하시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이 말씀을 전하면서,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영계>에서는 ‘미(美)’를 중히 본다. 왜냐고?

영계에서는

<삼위를 향한 사랑의 공적>이 ‘영의 미와 빛’으로 나타나고

<삼위의 뜻대로 의를 행한 공적>이 ‘영의 미와 빛’으로

나타나기 때문에 ‘영의 미(美)’를 중히 본다. 알겠지?

- ◆ 삼위를 진실로 사랑하고, 삼위의 뜻대로 행한 공적이 크면,
영의 키도 크고, 영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다.

사랑도, 공적도 별로인 영의 키는 120~150cm다.

조은이 영의 키는 2m다.

그의 <사랑의 공적>과 <의의 공적>이 크기 때문이지.

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오직 주 뜻대로만 살지 않느냐.

누구든지 삼위일체를 모시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,

모두 합당하니 <영체>가 아름답게 갖추지고 빛나고 발달된다.

- ◆ <영>은 <육>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,
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.

나 성령을 상상해 보아라.

그 대신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상상해라.

그렇게 상상하면 80%는 맞다.

그리고 상상한 대로 나를 그려 보기도 해.

화가 화정 목사와 미술부 화가들이 다 모여서 나를 그려도

나의 아름다움은 100% 표현을 못 한다.

그 정도로 아름답다.

세계의 화가들이 다 모여서 나를 그려도

그 미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.

그렇게 생각하고, ‘성령 본체’를 상상해 보아라.

나의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면서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

내가 더 역사할게.

- ◆ 나를 본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봐라.
그들의 영 급대로 봤으니, 제각각이다.

선생은 나를 아주 깊이 봤다.

그러니까 그리도 나를 가까이하며 놓지 않고 산다.

내가 어떤지, 선생에게 이야기를 들어 봐.

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 준다.

<육의 말>로 표현하면, 가치가 떨어질까 봐 말을 안 한다.

- ◆ 나 성령은 상천하지에서 최고로 예쁘니
그 아름다움이 어떠하겠느냐. 상상해 보아라.

<빛나는 다이아몬드>와 <일반 돌>만 비교해도 표가 나는데,

<나 성령>과 <세상 육적인 미인>은 얼마나 다르겠느냐.

나 성령은 태양과 같이 빛난다.

- ◆ 나를 보통으로 보지 말고, 우습게 보지 말아요.
엄마에 비유한다고 해서 너희 엄마의 모습처럼 생각하지 말아요.
깐깐하게 말한다고 깐깐하다고 하지 말아요.

나를 한 번 보기만 한다면

매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고 싶고,

매일 자기가 고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서

어서 다 고치고 깨끗하게 되어서

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며 안달이 날 것이다.

- ◆ 나 성령은 정말 예뻐서 ‘예쁜 너희’를 쓰고 나타난다.

서로 쳐다보아라. 그런데 ‘남자’ 는 좀 그래. (^ ^)

나 성령은 <여성>이니,
<남자>를 쳐다보며 나를 느끼기는 좀 그렇다는 말이야.

그러니까 ‘얼굴’ 을 보고 나를 느끼지 말고,
‘행실’ 을 보고 나를 느껴라.

남자든 여자든 ‘성령과 같은 행위’ 를 하면,
그 사람을 쓰고 내가 나타난다.

- ◆ 나 성령이 ‘너희 예쁜 행실’ 쓰고 나타나니,
특히 가정국들은 잘 좀 해.

자녀들도 귀히 보고, 외적으로 내적으로 관리해라.
자녀 관리를 못 한 ‘엘리 제사장’ 이 어찌 되었느냐.
너희 자녀들이 ‘하나님의 뜻’ 대로 살게 해라.

<말씀 마무리>

- ◎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.

- ◆ 나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.

섭리인 모두 <시대 말씀>을 잘 듣고 행하여
<육>도 ‘생각 미인, 행실 미인’ 이 되고,
<영>은 ‘영체 미인’ 이 되어서
하나님과 성자와 나 성령과 구원자 앞에 가까이 와라.

<논과 밭은> 집 가까이에 있어야 ‘문전옥답(門前沃畝)’ 이지?
너희도 삼위와 주를 가까이해. 그래야 ‘귀한 육과 영’ 이 된다.

- ◆ 나 성령은 너희가 싸움을 할 때도 가고, 화평할 때도 가고, 환난 때도 가고, 핍박 때도 가고, 공적인 일을 할 때도 가고, 너희가 부를 때 가서 역사한다.

늘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모시고

늘 <신혼 생활>, 늘 <사랑의 휴거의 삶>을 살아라.

나의 말을 듣고 행하자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

오늘 못다 한 말씀을 수요일에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.

(* 선생님 명설교는 12월 첫째 주에 나갑니다.)